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랜드 사태가 발생하여 노사정간의 접이한 이해관계가 대립중에 있다.

사실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예견되었던 충돌이라는 점에서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랜드 사태는 단지 개별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전국적인 노사갈등의 대리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하나는 이랜드가 선택한 방식으로 집단해고 또는 의무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정규직 법안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원정업체와 최저비용에 입찰하는 용역업체에 의한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해 11월 20일 비정규직 인법이 통과된 후 법원행정처는 계약직 민간경비원 40여명을 계약 해지 하였으며, 이어 서울대 병원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 미만의 비정규직 20명을 계약 해지했다.

같은 날 철도공사도 새마을호 승무원 113명을 계약 해지하고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위탁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랜드 사태로 본 비정규직 문제

시켰다. 또한 의무화의 경우 고용이나 임금 모두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노사가 협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개선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지난 해 말 우리은행 노사는 입단협에서 임지급 장구를 전담하는 장구텔러 등 비정규직 31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에서 비정규직의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바꾸었다. 외주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산업이나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이 처한 조건의 차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해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체 규모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숙련 정도 등 업무의 특성, 노조 유무, 고용관행, 인사노무관리의 특성, 내부 규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달리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해법을 개별 기업이나 업무 혹은 산업의 특성에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85.3%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에 비해 40.9%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해법을 이들 기업의 능력이나 선택에 맡길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혹은 고용개선은 개선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선택이 비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도 동일하다.

다만 기업은 사회적 공익(公益)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다는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나쁜 기업'에 맞선 '착한 소비'를 호소하면서 이랜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업내부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규직 근로자 및 노조가 스스로 고용안정 및 임금인상을 위해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이나 차별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해법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와 사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여 보다 넓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할 때인 것이다.

불자의 눈

이명박 후보 '제대로' 사과해야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가 서울 시장 시절의 '서울시 불현' 발언과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19일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에서다. 이 후보측이 배포한 청문회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검증위원인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이 "(서울시 불현) 정서적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종교가 오해 없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교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자신의 심경만 밝힌 셈이다.

이 후보의 '서울시 불현' 발언은 2004년 5월의 일이다. 3년이 넘는 지금, 이 후보가 검증 청문회라는 피할 수 없는 관문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말로 당시 불자들의 분노를 달오려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시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았겠느냐는 짐작도 금물이다. 이 후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럴수록 그 발언에 대한 불자들의 분노와 열려가 높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검증청문회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 정도 수위의 발언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까 염려스럽다.

시간 관계상 공중파 방송에는 중계 되지 않았지만, 이날 이 후보는 불자들에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참회'로 달라진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 여탈지는 모르지만 이 후보는 보다 명료한 말과 보다 깨끗한 표정으로 불자들과 모든 종교인들을 향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 세계화 '템플스테이'

조계종이 강원도 고성에 대규모 국제템플스테이 센터를 설립하고 서울의 조계사 인근에는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를 세운다고 밝혔다. 모처럼 의미 있는 불사를 종단차원에서 기획한 것 같아 반갑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 이화두를 푸는 키워드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크게 보면, 해외로 나가 직접 한국불교를 알리는 방법과 외국인들을 국내로 들여오게 하여 한국불교의 맛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언어의 장벽을 비롯해 갖춰야 할 조건이 많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가장 한국 불교다운 면모를 고스란히 그들에게 체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 그 방법으로서는 당연히 템플스테이가 꼽힌다.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철저한 체험을 통해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근원을 체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당 쓰는 일에서 참선과 108배 등 일상과 수행을 돌이키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템플스테이의 핵심인 것이다.

고성에 건립될 국제템플스테이 센터가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불교의 세계화 코드로 집약할 수 있는 전당이 될 것이다. 거기에 서울 조계사 인근에 세워질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가 전국의 템플스테이 사찰과 각종 프로그램을 한 눈에 파악하고 동참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튼튼한 두 날개를 얻게 될 것이다. 두 불사가 아무런 잡음 없이 화합되어 한국불교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

'종교자유' 칼럼

21.종교교육 박광서 (서경대 물리학과 교수)

중·고교 종교 과목 필요성·한계 명확히 해야

특정종교 예배의식 못지않게 교리교육을 강제하는 것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학교의 경우 여러 학기의 강제 채플과 달리 종교과목은 졸업 때까지 한 학기만 이수하면 되지만, 종교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한 시간씩 3년에서 6년간 본인의 종교와 무관하게 특정종교의 교리를 배우야 한다니 너무 가혹하다. 특히 개신교 학교의 경우가 강제성이 제일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 수로 보아도 불교계는 기독교계의 1/10에도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도그마성이 적은 불교 교리의 특성상 타인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영향은 기독교에 비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불교계 학교가 개신교 학교 흉내를 내 학생들에게 불교교육을 강제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불교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명분은 물론 현실적 실익도 없는 어리석은 짓이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종교과목의 편성을 살펴보자.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 관련 중·고등학교 지침에는 "종교과목을 부과할 경우,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불교나 천주교 학교는 종교 단일 과목을 편성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 반면에 개신교계 학교는 전국적으로 26개교가 고집스럽게 종교과목을 단수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온갖 편법을 쓰고 있는 학교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단수 개설이나 마찬가지로 학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편법이란 문서 상 복수로 편성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종교과목만 가르치는 경우, 복수과목 편성이라는 '빈거로운' 요구를 피하기 위해 종교과목 대신 철학과목을 개설한 다음 실제 수업은 종교교과서를 가지고 성직자가 가르치는 경우, 정규수업 시간이 아닌 재량활동 시간에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석근 소송에서 피고인인 대광학원측도 "종교과목 개설시 복수과목 편성을 의무화한 고시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법적성이 없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실정이다. 법률적 해석의 틈을 노려 버틸 때까지 버티보자는 속셈이다.

종교교육의 내용도 문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명시된 종교교육의 목표는 "종교에 대한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이 올해초 개최한 2007년도 교육부 종교교육과정 개정고시에 대한 심포지엄 모습.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인생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종교관과 태도를 기른다"고 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종교교과서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세계의 종교와 문화', '한국의 종교와 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 위주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가 제시하는 '종교교과 교육과정'을 무시한 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육당국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은,

종교과목에 대한 분명한 교육목표에 비해 그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예매도 호하게 돕으로써 학교의 편이나 종교교사의 자의에 따라 왜곡되게 운영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여섯 개의 교육목표별 비중·수준·강의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마지막 부분인 '특정종교의 경험과 신앙심 키우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발미를 제공하였으며, 결국 타종교 학생들의 특정종교 강요까지 정당화되는 것처럼 주장하게 만든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는 '고시'를 매년 반복해서 하달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민의 수확권과 학생의 종교인권의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종교교육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를 가능한 한 치밀하게 다듬어 놓아야 한다. 시행령 또는 더 바람직하게는 그 상위 법규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 지원 축소 등 단호한 벌이 뒤따르도록 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 제도로는 종합학교가 총출동해 쳐 놓은 그 물망은 학생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제 타종교 학생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특정종교 교육이 왜 필요한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종합학교일지라도 특정종교교인들만 다니는 특수학교가 아닌 이상 국·공립학교에서처럼 아예 종교교육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무리라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종교교육에 대한 범위와 한계 등을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는 데 다함께 지혜를 모아 야 할 것이다. 국민이 동의한 바 없는 강제 종교교육, 이젠 사라져야 한다.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개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곁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확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합장

◆ 참선공의식 사례

-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국.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월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④ 고등학교 2학년때 재학 중인 학생이 종래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뻘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 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전화 : 02)383-7057 / 011-379-1319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